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 못할 명령을 하십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영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2~9절)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4~5절) 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한 후에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다시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늘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10~12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지 4일이 지나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아무 때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리고성 앞에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후에야 이스라엘은 출애굽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어린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 되심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13~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다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만나 그의 명령을 따라 신을 벗습니다.(13~15절) 신을 벗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룯기에 보면 보아스가 룯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무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고민하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수 있길 원합니다.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명도 완수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이룰 수 있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12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2/6(월)	2/7(화)	2/8(수)	2/9(목)	2/10(금)	2/11(토)	2/12(주일)
레8-10	레11-13	레14-15	레16-18	레19-21	레22-24	레25-26

QT

이번 주 QT 말씀

2/6(월)	2/7(화)	2/8(수)	2/9(목)	2/10(금)	2/11(토)	2/12(주일)
삼상8:10-22	삼상9:1-14	삼상9:15-27	삼상10:1-16	삼상10:17-27	삼상11:1-15	삼상12:1-15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구별된 그리스도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3. 내가 깨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목원들 앞에서 나누고 고백해 주세요.
4. 내 삶에 진정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돌아보세요.